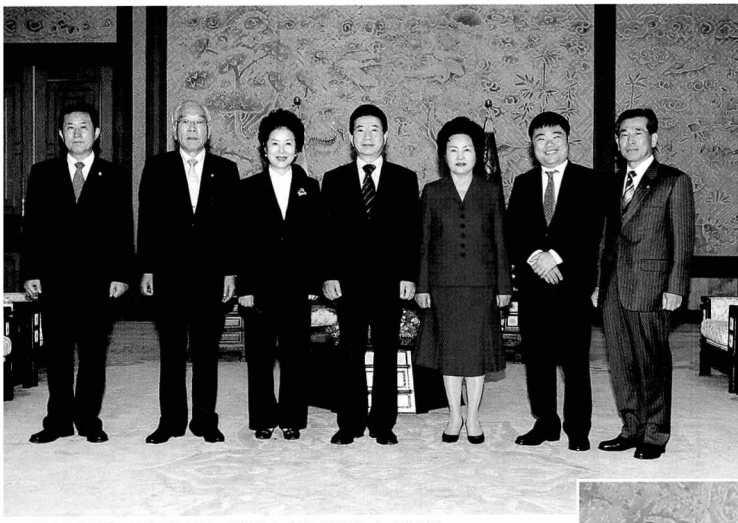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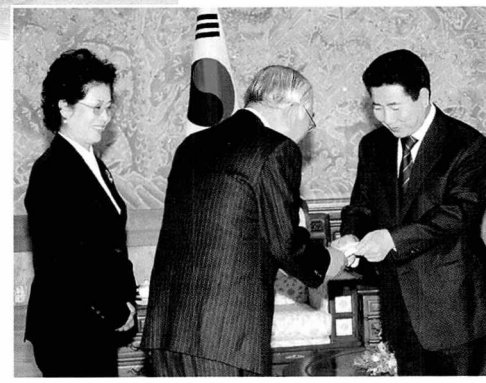
대통령 크리스마스 씰 증정

대한결핵협회(회장 김성규)는 지난 11월 12일 결핵홍보대사인 배우 선우용녀, 개그맨 정종철 씨와 함께 청와대를 내방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순 여사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결핵협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결핵 및 사회 전반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으며, 특히 북한의 결핵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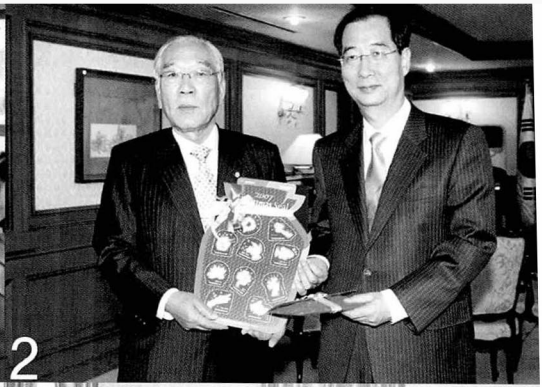
한편 11월 16일(금)에는 정진석 추기경을 만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였으며, 20일(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23일 이용훈 대법원장,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28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임채정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고 국내 결핵문제에 대해 알렸다.



씰 증정식을 위해 참석한 결핵홍보대사 선우용녀, 정종철, 그리고 이날 씰 증정식에 참석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규 회장, 고계인 사무총장과 대통령 내외분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1월 12일 오후 3시,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고 있다.



1 정진석 추기경과의 환담 모습(11.16)
2 한덕수 국무총리에 씰 증정(11. 20)
3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성규 본회 회장(11. 23)
4 오세훈 서울시장에 씰 증정(11. 26)
5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에 씰 증정(11. 26)
6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김성규 회장(11. 28)
7 임채정 국회의장에 씰 증정(11. 28)